자원 개발 - 지역별·국가별‘ 맞춤식 ’진출 전략을

- 자원의전략화가세계적추세, 해외건설·IT 역량극대화로돌파구를-

2004년부터지속되어온국제유가의상승으로 국제적인 자원 확보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동시에 국제 자원 시장이 판매자시장(seller's market)으로 전환되면서 자원 보유국들은 자원을 매개로 자국의 이익을극대화하는전략을추진하고있다. 특히, 자원을 자국의 산업 육성과 나아가 정치적 목적까지 포괄적으로 연계하는 국가 이익 극대화전략으로 접근하고있다. 이처럼첨예한자원확보경쟁과자원민족주의의심화로이제자원은경제적상품이라기보다는 각국의정치·경제적이익이연계된전략적 상품이되었다고볼수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를 수입하지만 메이저 등 국제 자원 개발 기업에 비해 인력, 기술, 자금등해외자원개발역량이매우낮아첨예한자원확보경쟁에매우취약한 대응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자원이 전략화되고 있는 시장 환경에서는 기업의 역량보다 전략적인 자원 외교가 자원 확보에 더많은기회를가져다줄수있다. 특히, 우리나라는비록자원개발역량이낮지만많은 자원 보유국들이 요구하는 플랜트나 건설, 정보·통신분야의 강국이기때문에 이를자원과잘만결합한다면, 메이저나선진강국과겨룰수있는경쟁력을확보할수있을것이다.

본고에서는 주요 자원 지역들의 진출 환경을 살펴보고, 각 지역 특성에 따른 자원 외교 전략들을 고찰해보았다. 또한, 이러한 자원외교전략을추진하기위한내부의자원 외교 시스템 문제에 대해서도 논해보고자한다.

주요 권역별 진출 환경과 자원 외교 전략

중앙아시아 · 아프리카

카스피해를 중심으로하는중앙아시아와 검은대륙아프리카는최근들어신예자원 보유국으로부상하는지역이다. 중앙아시아의자원보유 국가로는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등 4개국이 있다. 아프리카에는 알제리, 나이지리아, 적도기니, 앙골라, 남아공화국 등 약 10개국이상의나라들이있다. 이지역은 아직미개발광구가많아다른지역에비해 향후신규자원개발기회가많은곳이다.

중앙아시아와아프리카 자원보유국들은 대부분 산업화 초기의 저개발국이며, 강력한 중앙 집권적 체제를 갖고 있다. 또 이들 대부분은 자원 의존적 경제에서 탈피하기 위해 산업 다각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있다. 그런데이들의육성산업들이대부분우리나라가강점을갖고있는건설, 플랜트 및정보통신 분야이다. 이런측면에서 중앙아시아와아프리카는자원과우리의강점산업을연계하는패키지진출전략이유효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소수권력의 산업지배와집중적의사결정체계로자원 개발과 다른 산업의 연계가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 국가의 발전소와 정제설비, 송유관 등 하류 부문(에너지 설비 및 유통분야)은매우취약하기때문에하류부문을 통한 상류 부문(자원 생산)의 우회 진출전략도효과적일것이다.

그러나, 중국이나메이저등다른국가나 기업들도 이들 자원 보유국들에 대해 이미 대규모 경제지원등 다양한전략으로우리보다 앞서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만의 고유한 자원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상외교등정부간의협력 채널을확대하면서동시에이들이육성하고자하는 산업에 대해 인력 양성, 기술 지원 등 교육훈련사업이나, 자원을포함한산업분야와문화, 종교 분야까지아우르는 대규모 정기포럼개최를통해이들과의인적네트워크를확산해야할것이다.

중앙아시아나 아프리카의 자원 보유국들은풍부한오일머니로산업발전정책을추진하고 있어 대규모 신규 시장을 형성하는 이머징 마켓(emerging market)이라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패키지 자원 전략은 자원 확보는 물론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진출하는 효과적인 외교적 수단이기도하다.

중동

중동은세계최대의유전지대이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나쿠웨이트등 일부 대산유국들은 자국 유전의 외국 기업 진입을 금지하고 있다. 반면에 이란과 이라크, 예멘, 카타르나오만등은외국인투자를허용하지만진입여건은 그다지좋지않은편이다. 이란은미국과의핵갈등으로정치적장벽이높고, 이라크는 정정이 불안하며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유전 관할권에 대한 갈등이높아제도적불안요소도높다. 하지만중동은세계최대의산유지역이기때문에자원의안정적도입측면에서도결코소홀히넘어갈수없는지역이다.

현재 중동 산유국들은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대부분이쏟아져들어오는오일머니로석유의존경제를탈피하기위한산업다각화를강력하게추진하고있다. 특히, 제조업과 정보통신, 금융 서비스, 그리고 정제분야를비롯한에너지하류부문등에대한 외국인투자를적극유인중이다. 중동국가들이외국인투자에 대해관심이높은이유는자금부족보다는고도산업기술및기법을도입하기위해서인데, 이들분야중우리나라가강점을갖고있는산업들이많다. 따라서, 중동역시자원과산업을연계한패키지 전략이 유효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이란과 이라크를 제외한 중동 산유국들은왕정체제여서중앙아시아나아프리카 같이 중앙 집중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패키지 전략에 유리한 여건이라하겠다.

그동안우리나라는석유의 80%를중동에서도입하면서산유국들과독자적으로외교채널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미흡했고, 문화적교류도다른나라에비해적은편이었다. 따라서,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중동 외교가 추진되어야 하고,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문화, 종교분야까지인적교류확대를위한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인지도가낮은이슬람문화권에 대한이해를확산시키는데 정부차원의 정책개발과지원이필요하다하겠다.

러시아

러시아는 세계 천연가스의 1/4을 보유하고있는최대가스생산국이며, 석유생산도 사우디아라비아에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하는자원대국이다. 광활한대지를가진러시아에서우리나라의 주자원확보 대상지역은 동시베리아와극동 지역이라하겠다. 이 지역은아직미개발된 자원이풍부하며, 한반도와 인접하여 우리가 생산한 자원을 직접 도입하기 용이하다는 점에서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전략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이 지역 자원들은 중국과 일본도 노리고 있다. 그 한 예로 동시베리아 송유관의루트를놓고양국은수년 동안첨예한외교전을벌이기도하였다.

최근 대통령직을 물러났지만 여전히 실권을장악하고있는푸틴의에너지정책근간을 살펴보면, 내부적으로 에너지산업의

자원 외교는자원은물론건설 · 플랜트 · 정보통신 등의 산업적 역량과 외교 · 안보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연계되어야 보다효과적이다.

중앙통제를강화하고대외적으로는해외의 정유산업이나에너지유통부문등하류부문으로 러시아 기업이 진출하여 러시아의 에너지산업영역을국제화하는것이라하겠다. 정치적으로는에너지를대외 관계에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러시아의 위상을 높이고, 나아가러시아패권부활의유용한수단으로 사용하는것이라 하겠다. 이러한에너지 전략을 동북아 지역에맞추어본다면, 러시아는 동시베리아의 자원을 통해 경제적 이익은 물론 러시아 에너지 기업의 동북아 역내 국가들로의하류부문진출을적극추진할 것으로예상된다. 동시에러시아는동시베리아의자원을통해동북아에서러시아의위상과역할을강화하는데주력할것으로보인다.

따라서, 러시아에대한자원외교는이러한 러시아의 전략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즉, 석유정제, 가스유통, 발전소등우리나라 하류 부문에서 러시아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활성화하고, 정치 상황의 진전도에 따라남한과북한, 러시아를잇는에너지교류를 확대하여 동북아 역내에서 러시아의 위상을높이면서동시베리아의자원에진출하는전략이효과적일것이다.

중남미

중남미지역은베네수엘라가 대산유국이며 이외에 브라질, 아르헨티나, 페루, 칠레, 볼리비아등 자원이풍부한국가들이 많다. 그러나, 중동이나아프리카나중앙아시아와는달리중남미지역자원보유국들은 자원산업의 높은 경제적 비중에도 불구하고 자원 의존적 경제라고는할 수 없다. 이들 대부분은 자원 민족주의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베네수엘라, 볼리비아는자원산업의국유화로국제적인자원민족주의를촉발시켰고,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등은 자원산업이 민영화되어 있으나 상류 부문에 대해서는 외국인 접근을 제한하고 국가 통제를강화하는추세이다.

중남미 국가들은 다양한 정치 체제를 갖고있기때문에그만큼진출전략도다각화되어야한다. 정부의 정책 의사결정시스템이집중화되어있는베네수엘라, 페루, 볼리비아, 에콰도르등은해당국육성산업과연계 진출 전략이 효과적일 것이다. 반면, 정치와 산업 체제가 분권화되어 있는멕시코, 브라질, 칠레등은해당국가의상류기업들과적극적인사업 제휴를통한진출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외국기업에 대해장벽이높은상류부문에직접진출하는 것보다 진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발전소, 정유소, 제철소 등 하류 부문 진출을 통한 상류 진입도 하나의 효과적인 전략이라 할 수있다.

자원 외교 시스템의 개선

2004년 유가가 급등하면서 우리나라는 자원외교를적극추진하기시작했다. 2004년이후약17개자원보유국에대한정상외교가 실시되었고, 지식경제부(구산자부)에서는26개자원보유국과자원협력위원회를 조성해 적극적인 자원 외교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앞서살펴본바와같이자원외교는 자원만이대상이아니라건설, 플랜트, 정보통신등다른산업은물론외교안보문제까지 연계되어야효과적이다. 나아가자원 외교는자원 개발과 안정적도입을 위한 외교적수단일뿐만아니라자원보유국신규투자 시장 진출을 위한 적극적인 전략이라는 인식의전환이필요하다. 특히, 아프리카등 아직우리와 외교 관계가낮은 국가들에 대한자원외교는UN 등에서 우리의지지 국가를확산하는효과도볼수있다.

이러한속성을볼때자원외교는이제지식경제부나 외교통상부 등 어느 한두 부처의소관이아니라, 범정부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부처들은 물론 자원개발기업이나관련기관들이같이모여자원외교 전략을논의하고 실행하는기구가 필요하다. 또한, 정부내에 국가 자원외교에 대한 방향과 정책을 총괄적으로 수립하고각부서의자원외교정책추진사항에대해조정 · 감독 · 평가를시행하는기능도있어야할것이다.

새 정부는 자원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있다. 따라서, 정책의중요성만큼자원외교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있는정부내의시스템 개선이필요하다.

정우진
에너지경제연구원선임연구위원